

왕인별 찾는 그림책 영암 왕인박사유적지서 출판기념식

영암군, 기획·창작 그림책 <나는 기다려요> <별을 찾는 아이> 알려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7일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출판기념식을 열고, 지역의 역사와 자연, 문화를 배경으로 기획·창작한 그림책 2권을 내놓았다.

책 전시와 문화 체험의 장인 '2025 별빛책마당' 행사에서 '영암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 사업'으로 창작 그림책 <나는 기다려요>(오지근·오은별), <별을 찾는 아이>(김진·오지근)의 출판을 기념한 것.

<나는 기다려요>는 영암의 월출산 큰 바위얼굴을 모티브로, 모든 생명이 하나의 빛에서 태어나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리며 기다림·화해·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별을 찾는 아이>는 아빠와 별뿔별을 보러 간 주인공 온이가 왕인박사 책글에서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별에 '왕인'이

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다짐하는 이야기로, 역사·우주·꿈을 연결한 감동을 전한다.

특히, <별을 찾는 아이>는 왕인박사의 가르침과 지역의 역사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풀어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소개돼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출판기념식에는 오지근, 오은별 작가의 그림책 이야기, 독자와 대화가 진행돼 가족 단위 행사 참가자들이 월출산국립공원 자락 아래서 문학과 어울리는 시간을 선사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2027년까지 총 16권 1질의 영암 이야기 그림책이 발간될 예정이다. 그림책으로 영암을 사랑하는 분들, 아직 영암을 잘 모르는 분들도



두 영암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두 그림책 이외에도 이미 옛이야기 그림책 발간 사업으로 <열두

번 노는 날> <바위틈 별천지> <특별한 꿀과 특별한 친구> <배짱좋은 옹기촌 사람들> 4권을 출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양경자청, 추석 맞아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지역과 함께하는 한가위, 광양경자청 손길 이어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중근, 이하 광양경자청)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권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위문에는 △광영사랑 노인복지센터 △가온누리 노인복지센터 △온마을 주간보호센터 등 광양시 3곳을 비롯해 여수시 2곳, 경남 하동군 2곳 등 총 7개 시설이 포함됐다. 광양경자청은 각 시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과 쌀 등을 직접 전달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양경자청은 2004년 개청 이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복지시설을 찾아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어김없이 온정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구중근 광양경자청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군, 추석명절 앞두고 나눔으로 하나되는 지역사회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에게 안부 전하며 훈훈한 온정 나누

강진군이 지난 22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역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용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했다.

강진군은 장애인복지관에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관내 프로그램실과 올해 새로 마련된 세탁실 등을 둘러보며 이용자와 소통하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김승민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많은 분

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용자들에게 큰 힘이 됐다. 우리 복지관 역시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명절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이번 위문 활동을 시작으로 관내 19개의 복지시설에는 소고기와 과일, 장애인단체에는 과일, 350여 가구의



어려운 이웃에게는 과일과 참치세트, 현금 등을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를 더욱 아끼고 보살피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구매 물품은 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보내기에 앞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추석을 앞둔 9월 22일(월), 굴비골 영광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면 한빛원자력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봉사대 약 30명이 참여하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11년부터 14년째 이어져 오는 한빛본부의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는 뜻깊은 사회공헌 활동이다. 봉사대는 영광사랑상품권을 사용하여 1,85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구매하였다. 이는 영광군·고창군 복지시설 22개소에 전달되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기에 쓰일 예정이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이웃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을 이어가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추석맞이 관내 환경정화 활동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주, 전라, 제주권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우리 주변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하여 관내 21개 지사 215명

의 직원들이 몸소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주로 환경정화 필요성이 높은 곳들이 집중 활동구역이 되었으며, 광주 양동시장, 여수 웅천천수공원 해수욕장, 익산 신흥근린공원 등 권역 내 다양한 곳에서 쓰레기들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영희 본부장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평소에도 환경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면서 "앞으로도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겠다"라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아이에게 선물하는 특별한 하루

제25회 곡성심청 어린이 대축제

2025. 10. 23. - 26. 곡성섬진강기차마을